

# 협상의지일까 시간벌기일까...트럼프, 발전소 공격 보류

### 확전·유가 부담 속 '48시간 통첩' 보류...공격 5일간 미뤄 이란 "美와 대화 없다" 반박...'양측 협상' 험로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속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하고 있다며 '48시간 통첩'과 함께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미뤘다.

얼마 남지 않은 데드라인을 일단 미루며 출로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도록 압박하면서도 확전은 부담스러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종전에 무게를 두는 입장으로 선화한 것인지 주목된다.

그러나 미국과 대화가 없다고 이란이 반박하고 있어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병력이 중동에 집결해 대대적 작전에 돌입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고 유가 상승을 억지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인 23일(현지시간) 오전 7시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전부 대문자로 된 게시물을 올렸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이틀간 아주 생산적인 대화를 했고 논의가 계속될 것이며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5일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했다. 이란도 미국도 협의를 원하며 합의 타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며 으름장을 놓

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인 지난 21일 오후 7시44분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금부터 48시간 내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이날 저녁이면 48시간 시한이 다 되는 것이라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최고조를 향해 치닫는 상황에서 시한 도달 12시간 정도를 앞두고 불속 이란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5일간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 공격을 보류하고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사실상 데드라인이 금요일인 27일까지로 미뤄진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상대가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측근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도 나왔으나 이란은 미국과 대화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상의 실체'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이 당장 개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의 예고한 대로 이란 발전소 폭격을 감행하는 것보다 일단 5일간의 시간을 벌고 출로를 모색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계산했을 가능성



23일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공항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있다.

이란 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고 미국 내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출구 마련이 한시라도 급한 상황이다.

공화당에서는 자칫하면 중간선거에 내세울 외교적 치적으로 삼으려던 이란 전쟁이 선거 참패의 최대 요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번지고 있다.

협상 확인 및 공격 보류 선언을 뉴욕증시 개장 전인 오전 7시께 한 점을 두고서

도 시장 안정 도모 차원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유가가 장중 급락하고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이란으로서도 표면적으로는 내부 단속을 위해 항전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나 장기화하는 전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양측 모두 확전을 감당하기 어려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중에 군사공격을 결행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외

교적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고는 해도 협로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또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강한 불신 속에 이란은 미국 및 이스라엘의 공격 재발 방지 확보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생산적 대화를 내세우며 일시적으로나마 군사공격을 보류한 것은 협상을 통한 종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

### 네타냐후, 트럼프와 통화 "美, 이란협상서 이익 보장"

메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란에 대해 미·이스라엘 연합군이 거둔 군사적 성과를 이스라엘 이익 보호를 위한 협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군과 미군이 거둔 막대한 성과를 지렛대 삼아, 우리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는(이란과의) 합의를 통해 전쟁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심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동시에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타격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공격이 이란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있으며, 헤즈볼라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과 며칠 전에도 이란 핵 과학자 2명을 추가로 제거했으며,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덧붙여 공세 지속에 대한 뜻을 분명히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갈리바프 의장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현재 어떠한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